



전력낭비 막아주는 인사이트파워 '와트드림'

플러그에 꽂아 스마트폰으로 전기 끄고 켜다

전병섭 인사이트파워 대표가 창업을 결심한 것은 2012년 8월이었다. 그해 여름도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이어졌다. TV를 틀면 대규모 정전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다. 어느 날 콘센트에 빼곡히 꽂힌 가전제품 플러그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 대표는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가 연 4200억원어치 이상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만 해도 전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전 대표는 '스마트 플러그'에 주목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때 전력을 차단하고 사용량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

◆2년 만에 개발 완료
경기 안산시에 사무실을 열고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루 알기 때문에 상품화에는 자신 있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원, 소프트웨어업체인 시메스코리아 기술부장 등을 지냈다. 2년간 개발에 매달린 끝에 지난해 9월 '와트드림'을 내놨다.

와트드림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와트드림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꽂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블루투스 기술 차별화
무선공유기 필요 없어
원거리용 제품도 개발

G마켓·11번가에 입점
유통시장 공략도 나서

연결하면 된다.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언제든 TV,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다. 알람을 맞추듯 미리 정한 시간에만 전원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특정 요일에만 작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를 아끼는 것은 물론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전 대표는 설명했다.

블루투스 기술을 쓴 것이 경쟁제품과 다른 점이다. 해외 제품은 대부분 와이파이 방식이다. 전 대표는 “별도의 무선 공유기가 필요 없고 전력 소모량도 적은 것이 블루투스 방식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앱 조작법도 간편하게 바꿨다.

전 대표는 품질 개선에도 계속 힘쓰고 있다. 와트드림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 플러그는 작동 원리상 가까운 거리에서만 조작할 수



전병섭 인사이트파워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작동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인 '와트드림'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는 8월께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 대표는 전망했다.

◆중소기업들과 협업 꿈꿔
와트드림은 지난 22일 정부의 기간전인증을 받았다. 개발을 마친 지 7개월 만에 판매가 가능해졌다. 조만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 입점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과 KTX 부산역사에서도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 대표는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전에 출품한다. 미국과 일본보다는 유럽을 우선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콘센트 모양이 같고 스마트 플러그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에도 입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대표는 “중소 제조업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와트드림 기능이 내장된 TV, 정수기 등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대동애프앤디의 드림룩 (031)919-1359 △비스로의 자동차 도난방지 엔진락 (031)491-0226 △에스티씨의 보안용 컬러 카메라 (042)536-6761 △인사이트파워의 와트드림 070-4624-6993



“달콤 감자칩, 내가 1등”

농심-해태제과, 매출 놓고 또 신경전

달콤한 감자칩 시장 1위를 두고 해태제과와 농심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었다.

농심은 28일 님스코리아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130억원어치가 팔린 자사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가 스낵 시장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심 새우깡(114억원)과 오리온 포카칩 스위트치즈맛(110억원)이 각각 2, 3위였으며,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은 87억원어치가 팔려 6위를 기록했다.

해태제과는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소성수 해태제과 팀장은 “자체 집계 결과 허니버터칩 1분기 매출은 184억원(소비자가 기준)으로 스낵시장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크게 앞질렀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님스코리아의 조사 방식과 해태제과의 판매

방식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님스코리아는 3000여 개 표본 소매 유통점에서 해당 과자의 판매 자료를 취합해 총 매출을 산출한다.

소 팀장은 “허니버터칩은 대부분 소매점주가 매장 진열대에 놓지 않고 예약판매를 하기 때문에 님스코리아의 조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에도 달콤한 감자칩 1위 논쟁을 벌였다. 농심은 당시 수미칩 허니머스타드가 출시 한 달 만에 86억 원어치가 팔려 허니버터칩의 월평균 매출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해태제과는 허니버터칩 75억 원어치, 허니통통 38억 원어치를 판매해 113억 원의 허니시리즈 매출을 올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진규기자 josep@hankyung.com

신세계, 전통시장 청년상인 240명 키운다

24명에 일본 연수 기회도

신세계그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교육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심재일 전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를 비롯해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 백화점 고객서비스팀의 유통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하고 유통 노하우를 전수한다. 올해는

교육생을 전년 대비 1.5배인 240명으로 늘렸다. 4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40명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 및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우수 교육생 24명(10%)에게는 일본의 선진 유통시설 연수를 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군선 신세계그룹 CSR사무국

부사장은 “올해는 현장 중심의 생생한 경험을 전수하고 토론 등 상호학습을 강화해 운영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수료생 가운데 2명은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김병근기자 bk11@hankyung.com



7억짜리 다이아 반지 롯데백화점은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소공동 에비뉴에서 '월드 와치&주얼리 페어'를 연다. 다이아몬드 브랜드 드비어의 7억 원짜리 반지(가운데) 등 희귀제품도 전시된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롯데, 농식품 소비·수출 상생협약

농식품부·농협 등과



롯데그룹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와 농식품 소비·수출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는 그룹 차원의 유통·식품 사업 역량을 활용해 농가의 전방위 판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슬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합작 인증 획득도 도울 예정이다. 또 롯데가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

가공 유통 서비스 등을 융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상품용에서 원료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해외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국산 농산물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기자 bk11@hankyung.com

민간자격증 제2010-0532호

제18회 IFRS관리사 검정시험 공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LG, CJ, 한국전력공사, HYUNDAI, SK innovation, IBK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원씨엔씨, IBK기업은행, PDONGSAN, KAIST, 에프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G화학, LG생활건강, kt, UNID, LS, DAEJIM, 대우건설, KORAIL, KEB, 오뚜기, poosteel, KYOB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NICE신용평가정보(주), citibank, HSBC, KOSWAVE,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 IFRS관리사 시험 단계별 기입 및 IFRS관리사 합격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와 일부 예사입니다.

IFRS관리사 자격시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자격시험제도입니다.

원서접수	추가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5.05.01(금)~06.15(월)	06.16(화)~06.23(화)	2015.07.04(토)	2015.07.10(금)

[시험안내]
 응 시 료 | 50,000원 (추가접수기간 60,000원)
 원서접수 | 접수기간 중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사전접부)
 시험요강 | 출제범위 등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 11:00~12:40 (100분)
 고 사 장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응시자 선택)
 문 의 처 | 시험관리위원회 02-360-4080 www.ifrstest.org
 환불안내 | 전액환불: 일반접수기간
 반액환불: 일반접수기간 종료 후 ~ 시험일 8일 전까지
 ※ 이후 환불 불가

시험인용 KCFD 韓國CFO協會 | 시험관리 한국경제신문 | 시험후원 Deloitte.

한경과 함께하는 일본요양시설 벤치마킹연수

일본의 노인요양 관련 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견학과 지자체의 '개호보험'에 대한 정책실행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국내 노인요양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일차 6월11일 (목)	사단법인 특별노인요양원 박애원 케어하우스, 게오 지원센터, 아동 가정 지원센터 등 사업활동에 하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문화탐방: 일본의 문화수도 오사카 시내 탐방
2일차 6월12일 (금)	고베 행복촌 고베에 위치하여 고령자, 장애인에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지자체방문 (기타 브리핑 및 시설견학) 개호보험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문화탐방: 고베 모자이크 및 히버랜드 탐방
3일차 6월13일 (토)	고령자 복지종합시설 모모야마 케어종합서비스와 복지종합시설 복지용구 관련업체 방문 문화탐방: 일본 전통 도시 코토 시내 탐방

연수일정: 2015년 6월11일(목) ~ 6월13일(토)
 연수대상: 시설요양사업관련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재가사업관련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재가노인복지사업 관계자 등)
 방문간호사업관련자, 요양보호사 교육준비기관 등
 연수인원: 20명(선착순 마감)
 연수비용: 160만원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포함)
 연수문의: 02)360-4881, http://ac.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